

24년 9월 목회일정

8일(주일)	성찬가침식방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김태영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
2-3일	교회교육엑스포(총회교육원추천-포도원교회당)
10-13일	고신총회(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일(월)	노회SFC지도위원회(엘림교회당)
20일(금)	임원회 및 공천부모임(샘터교회당)
17일(화)	세속명절(한가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신앙고백반교육** / 오늘은 쉽니다.
- 오후예배** / 세속명절로 인하여 오후예배는 각 가정별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강독문과 순서는 주보(5-7면)를 참고하시고, 밴드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강단교류** / 다음 주일은 본 교회와 김해개혁장로교회(경남김해노회)가 강단교류를 합니다. 오전오후 예배와 설교를 김태영 목사께서 인도하십니다.(최목사-김해개혁장로교회)
- 세속명절** / 주간 중에 한가위명절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세요.
- 담임목사동정** / 노회임원회-20일(금) 오전8시 샘터교회당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문화주일(29일) [성경으로 영화읽기]
: 영화제목 [서서평]-독일인 선교사의 이야기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설교, 강독)
② **성령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 (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 (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격주)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9월	10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이경준	김낙형
안 내	김유니	최예지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9.15.(제28-37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 예배에로의부름 ↑ 애 3:22-23(교송)
인도자 :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 중 :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배찬송 ↑ 찬송 6장(1-2)

죄의고백

- * 십계명봉독 ↓ 출20장(주계명/봉독)
- * 죄의공적고백 ↑ 제 6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사찬송 ↑ 시편23편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경봉독 ↓ 요16:33, 시 3:1-8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 3편
- 설교 ↓ 설교자

주를 의뢰하는 자의 구원

-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3a-b)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7장

폐회

-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가정기도회</div> <div>교회소식</div> <div>개회</div> <div>* 예배예로의부름 ↑ 시23:1-2(교송)</div> <div>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div> <div>회 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느도다</div> <div>*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div> <div>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div>* 경배찬송 ↑ 시편50편(1)</div> <div>신앙고백</div> <div>* 신앙고백 ↓ 사도신경</div> <div>* 감사찬송 ↑ 찬송가377장</div> <div>말씀봉사</div> <div>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div> <div>성경봉독 ↓ 마16:1-12</div> <div>교리문답교독 ↓ 소교리76-78문답</div> <div>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10편(3-5)</div> <div>설교 ↓ 각 가정의 가장</div> <div>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div> <div>아멘송 ↑ 찬송가643장</div> <div>자비사역</div> <div>봉헌및봉헌찬송 ↑ 시편62편(1-5)</div> <div>폐회</div> <div>* 강복선언 ↓ 주기도문</div>		<div>주간기도회</div> <div>아침기도회</div> <div>월~금 6시(교회밴드)</div> <div>에스라 묵상</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수요기도회</div> <div>수요일 20시(예배당)</div> <div>[말씀·고백·삶]</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지역기도회</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동부(목, 10:30)</div> <div>* 울산(화, 19:30)</div> <div>인도 : 양주동 목사</div> <div>* 김해(수, 19시)</div> <div>* 특별(시간지역협의)</div> <div>이야기성경</div> <div>구66.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div> <div>신42. 물고기를 잡으려 간 제자들</div> <div>주간성경읽기</div> <table><tr><td>주일</td><td>왕하24-25</td><td>고후 12</td></tr><tr><td>월</td><td>사 1-2</td><td>고후 13</td></tr><tr><td>화</td><td>사 3-4</td><td>살전 1</td></tr><tr><td>수</td><td>사 5-6</td><td>살전 2</td></tr><tr><td>목</td><td>사 7-8</td><td>살전 3</td></tr><tr><td>금</td><td>사 9-10</td><td>살전 4</td></tr><tr><td>토</td><td>사11-13</td><td>살전 5</td></tr></table>	주일	왕하24-25	고후 12	월	사 1-2	고후 13	화	사 3-4	살전 1	수	사 5-6	살전 2	목	사 7-8	살전 3	금	사 9-10	살전 4	토	사11-13	살전 5
주일	왕하24-25	고후 12																					
월	사 1-2	고후 13																					
화	사 3-4	살전 1																					
수	사 5-6	살전 2																					
목	사 7-8	살전 3																					
금	사 9-10	살전 4																					
토	사11-13	살전 5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1. 대적들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중에 더욱 주의 언약을 의뢰하며 언어행실을 주의하도록

2.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여 대적들 앞에서 정직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도록

3. 주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대적들 앞에서 나의 머리 들게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1.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옛사람의 행실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2. 가족의 독일거주를 위한 동반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이뤄져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3. 총회선교부를 통한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환경이 호전되어 새로운 사역에는 변화가 없도록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목사·고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롬 10:17).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을 파괴합니다. 악한 것을 소멸시키며, 죽은 것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욕망을 좇아 살아가게 하는 헛된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세상의 헛된 교훈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명절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양식 하늘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 수정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뵈는 가나안땅 편히 당게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 하리라 주께 찬양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16장 1~12절

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²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³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⁵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⁷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⁸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⁹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¹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¹¹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¹²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마 4:3).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칠병이여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께 또 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보라는 마귀의 시험처럼 악의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여와 칠병이여의 표적을 보이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칠병이여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에 먹을 떡이 없자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만일 광야에서 마귀가 떡으로 시험했듯이 제자들을 유혹했다라면, 그들은 먹을 것으로 인해 크게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먹고도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칠병이여의 표적을 보고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떡에 정신이 팔려 있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빵”입니다. 이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처음에 누룩에 관하여 들을 때에 빵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일과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병이여와 칠병이여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신앙고백은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곧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풍성히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혼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제자들을 위협하기는 했어도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 그 제서야 자신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15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10장
성경봉독	시3:1-8, 요16:33
설 교	주를 의뢰하는 자의 구원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사람이 자고 깨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룻밤을 자고 깨는 일이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1. “다윗이 당하는 고통”

다윗은 대적이 많았습니다.(1) 이 시를 지었던 당시의 대적은 왕위찬탈을 위해 모반한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된 가장 큰 책임은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곧 그가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취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에 찬동한 자들, 그리고 시류에 따라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한 자들은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삼상15:13).

그러나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왕위를 잃은 것이나, 아들에게 배반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삼상 17장)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다시 왕이 된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대적들을 통해 다윗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그의 명예나 부자관계가 아니라 그가 의뢰하던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같은 마음을 갖게 함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 약속에 대하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을 사랑하사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대적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2. “고통 중에 다윗이 의뢰하는 길”

솔직히 함께 하던 이들이 한 사람씩 떠나가면 그 만큼 힘든 것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여겨질 때에 자신을 버린 듯한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

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야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자신의 머리를 드는 자, 곧 존귀케 하시는 분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그때에 야웨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당대 최대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의 모략으로 막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이미 작정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야웨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삼하 17:14f)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야웨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4)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약속되어진 곳입니다. 다윗은 그 산에 야웨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성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사2:3) 성산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요16:33)

3. “야웨께서 말미암는 다윗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의 방패요 영광으로 삼는 자, 곧 자신의 모든 존귀한 가치로 삼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비참한 물골로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준비하여 잠이 든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 위험한 밤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아침을 맞이한 다윗이 눈을 떴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모두가 피곤하여 지친 밤에도 야웨께서 나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서 붙드셨도다.”라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다윗에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5-8)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의 대적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험 속에서 계속 누워 자고 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그를 멸하기 위하여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야웨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그 대적들을 치는 것마저도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하여 친히 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삼하17:27-29). 자기 백성을 위경에 빠뜨린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 넘어질 듯 겨우 서 있는 자를 공격하는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야웨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4년 9월15일(주일 가정기도회)

마16:1-12(신,26)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거짓을 이깁니다.”

1. 시험하러 오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마귀와 똑같은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합니다(마 3:7).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란 건, “마귀의 자식들”이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초반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시험하러 온다”는 표현은 이전에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귀처럼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들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이와 같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질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마귀처럼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4)고 하시고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는 예측하지만, 정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마 12:39).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간 있었다가 나온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나아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애초에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독사의 자식으로서 충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2.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